

검색포털 지식검색에 대한 한의학분류체계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김 철

한국한의학연구원

A study of investigation and improvement to classification for oriental
medicine in search portal web site

Chul Kim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these days everyone search the information easily with the Internet as the rapid distribution and active usage of the Internet. The search engines were developed specially to accuracy of information retrieval. User search the information more quickly and variously with them. The search portal system will be embossed with representation and basic services. The Internet user needs the result of text, image and video, knowledge search. The keyword based search is used generally for getting result of the information retrieval and another method is category based search.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lassification of knowledge search structure for oriental medicine in market leader of search portal system by ranking web site. As a result, each classification system is unified and there is a possibility of getting up a many confusion to the user who approaches with classification systematic search method. This treatise proposed the improved oriental medicine classification system of internet information retrieval in knowledge search area. if the service provider amends about the classification system, there will be able to guarantee the compatibility of data. Also the proper access path of the knowledge which seeks is secured to user.

key words : information retrieval, classification for oriental medicine, knowledge search, search method

I. 서 론

국내의 경우 2000년 이후 인터넷 보급률이

점점 높아지고, 웹 검색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용자들은 원하는 정

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며, 이에 맞추어서 검색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포털업체 핵심기술인 검색엔진을 요구사항에 맞게 계속해서 개선시켜나가고 주제별 카테고리의 구조를 체계화 하여, 찾고자 하는 정보에 대해 직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학과 관련된 정보의 검색에 있어서 고전문헌이나 논문, 기타 도서가 활용되기는 하지만, 인터넷에 연결만 된 검색도구(PC, 노트북, 휴대폰, PDA 등)만 있다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의 편리성과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점점 더 인터넷의 위력이 커져 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검색에 있어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지는 방법이 키워드 검색이다. 원하는 검색어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만 클릭하면 이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사전, 지식(Q&A 포함), 웹사이트, 카페, 블로그, 기사, 동영상 등 수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얻어낼 수 있기에 가장 대중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이다. 키워드 검색은 위에 언급했듯이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내기에 결과내 재검색, 또는 상세검색 등의 방법을 각 검색포털에서 제공은 하나 단순한 검색어에 대한 질의 결과를 표출해주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법이다. 키워드 검색과는 별개로 찾고자 하는 정보를 PC에서 사용하는 window 탐색기의 모양과 흡사하게 카테고리 형태로 정보를 grouping 해두어 사용자로 하여금 차례로 찾아가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게 해주는 분류체계를 통한 검색방법(또는 카테고리 검색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원하는 정보를 찾아가기 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이 수반되나 garbage 정보가 그 만큼 적고, 최종적으로 원하는 정보들이 원하는 분류체계에 많이 속해져 있을 때 그 위력을 나타낼 수 있다.

단순히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제공받는 환경에서 IT 기술이 높아지고, 일반 이용자들의 참

여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가게 되었는데, 현재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식검색과 wikipedia 같은 인터넷사전이다. 지식검색의 경우는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보를 실제 사용자들이 질의를 하고 답변 내용 중 가장 신뢰성이 높은 것에 대한 추천 또는 질의지가 선택함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인터넷 백과사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 정보의 신뢰도는 신문이나 방송에 벼금가게 높아졌기에, 서비스 이용자는 검색포털에서 제공해주는 정보를 대부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다. 1) 특정사안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신뢰하는 매체로서 인터넷은 20.0%로서 TV(61.7%)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고, 신문(15.0%)보다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었다. 이런 배경에서 지식검색의 경우 실제 컨텐츠의 객관성 측면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컨텐츠 이외의 측면에서도 특히나 친숙하지 않은 한의학과 관련된 용어가 엉뚱한 카테고리 구조에 속해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위험성과 1 단계로 표출되는 대분류 구조가 곧 한의학의 기본적인 분류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카테고리 검색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카테고리 구조의 설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정보검색과 관련되어 일반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포털의 지식검색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한의학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고려한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본 론

1. 종합포털 지식검색의 한의학분류체계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웹메일서비스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정보(일정, 주소록 등)관리, 정보제공 사이트 검색 등으로 서비스의 대상이 변화되어 져 왔다. 웹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검색포털 사이트는 현재는 다양한 컨텐츠 제공업체(CP : contents provider)와의 제휴를 통해 컨텐츠를 확충하였으며, 현재는 개인 이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등록하고 이 정보를 공유 및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블로그, 카페, 지식검색 등의 정보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중분류 순위 ▼	대분류 순위 ▼	소분류 전체 순위 ▼	소분류 명 ▼	사이트 / 섹션수 ▼
1 -	2 -	2 -	포털검색	14
2 -	3 -	7 -	포털이메일	10
3 -	4 -	12 -	포털지식검색	6
4 -	7 -	22 -	포털쇼핑	10
5 -	8 -	30 -	포털지역정보	10
6 -	16 ▼	94 ▼	포털사전	6
7 -	17 ▼	96 ▼	포털도서	5
8 -	25 ▲	295 ▲	포털자동차	4

[그림 3] 포털 컨텐츠 이용 순위

국내 순위사이트 중에서 이용이 가장 높은 랭키닷컴(www.rankey.com)에서 제공해주는 카테고리 순위정보 중에서 ‘포털 섹션’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다수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화된 포털이 등장 하였는데,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검색을 메인으로 하는 포털의 이용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의 ‘포털 검색’을 클릭하면 점유율을 기반으로 한 국내 검색포털 사이트의 순위가 나타나는데, 점유율이 0.01% 미만의 사이트를 일부 제외하고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나타난 상위 5개 사이트에 대해서

특정 검색어에 대한 통합검색결과 페이지의 구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소분류 순위 ▼	사이트 / 섹션 명 ▼	중분류 순위 ▼
1 -	네이버 검색	1 -
2 -	다음 검색	2 -
3 -	네이트 검색	8 -
4 -	야후코리아 검색	9 -
5 -	파란 검색	17 -
6 -	코리아닷컴 검색	38 -
7 -	드림위즈 검색	40 -
8 -	프리챌 검색	44 -
9 -	CHOL 검색	45 -
10 -	MSN 검색	54 ▼

[그림 4] 국내 포털검색 점유율 순위

<표 1>은 각 사이트의 운영에 필수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스폰서 링크 등은 표시를 하지 않았고, 상위순서대로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결과이다. 상단에 위치한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노출 빈도가 그만큼 높으며 이용률과 연관성을 지닌다.

국내에서 포털을 표방하는 모든 사이트는 검색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네이버 지식의 성공으로 인해 다수의 포털이 지식검색을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로 도입하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주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구축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의 룰모델로서 지식검색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1> 검색포털사이트의 서비스 구성도

네이버	다음	엠파스	야후코리아	파란
지식iN	관련검색어	전문자료	관련검색어	관련검색어
사전	사전	사전	사전	뉴스
사이트	사이트	사이트	블로그	사전
이미지	신지식	최신뉴스	웹	블로그
책	카페글	열린지식	이미지	전화번호, 지역
전문자료	블로그	열린게시판	지식	지식
뉴스	게시판	열린블로그	비지니스	재테크검색
웹문서	뉴스	미니홈피	동영상	취업검색
카페	카페이름	클럽	뉴스	맛집검색
지역정보	전문자료	리뷰	거기(지역)	매너나
동영상	이미지	이미지	쇼핑	사이트
연관검색어	동영상	동영상	관련검색어	책
	웹문서	책		잡지
업체정보	쇼핑			유머
책	지역			유행
	취업			이미지
	웹문서		동영상, ...	

<표 1>에서 보듯이 포털사이트들은 지식검색을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로 간주하여 비교적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으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정책상 대표서비스로 가장 최상단에 지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초기에는 정보 그 자체를 검색해서 제공해주기 보다는 찾고자 하는 웹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는 게 이용빈도가 높았고, 여기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정의해 카테고리를 통한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표 1>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컨텐츠들(블로그/미니홈피/카페/커뮤니티, 지식검색, 이미지/동영상/UCC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포털사이트들은 웹 사이트의 분류와는

다른 카테고리들을 생성하게 된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이용빈도가 가장 높은 네이버에서 [그림 3]과 같이 일반적인 카테고리 구조와 지식검색을 위한 카테고리 구조는 다르게 정의되어 있으며, 다음이나 엠파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네이버 디렉토리

카테고리 팀생기	지식Q&A	오늘
■ 게임	컴퓨터, 통신	
■ 경제, 재테크	게임	
■ 교육, 학문	엔터테인먼트, 예술	
■ 기업, 쇼핑	비즈니스, 경제	
■ 뉴스, 미디어	쇼핑	
■ 생활, 건강	사회, 문화	
■ 레저, 스포츠	건강, 의학	
■ 문화, 예술	가정, 생활	
■ 사회, 정치	여행, 레저	
■ 세계정보, 여행	스포츠	
■ 엔터테인먼트	교육, 학문	
■ 인물, 사람들	지역Q&A	
■ 컴퓨터, 인터넷	고민Q&A	
	쥬니버 지식iN	

[그림 3] 네이버 디렉토리 vs 지식 디렉토리 구조도

<표 2> 지식검색 디렉토리 대분류 구조도

네이버	다음	엠파스	야후코리아
컴퓨터,통신	컴퓨터,인터넷	컴퓨터,인터넷	수능지식
게임	게임,오락	가정·생활·취미	지역지식
엔터테인,예술	엔터테인먼트,예술	건강·의학	과학
비즈니스,경제	쇼핑,제품정보	교육·학문	게임
쇼핑	생활,가정	경제·재테크	건강
사회,문화	스포츠,레저	엔터테인먼트	여가생활,스포츠
건강,의학	교육, 학문	쇼핑·상품정보	비즈니스,경제

가정·생활	건강·의학	여행	엔터테인먼트
여행·레저	금융·재테크	문화·예술	사회
스포츠	사회·문화	사회·시사·공공	꾸러기
교육·학문	여행·해외정보	게임	컴퓨터·인터넷
지역Q&A	지역정보·교통	스포츠·레저	교육
쥬니버 지식iN	고민상담	기업·비즈니스	문화·예술
	어린이·신지식	어린이·호기심	쇼핑
	지역	가정·육아	
			생활정보

점유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책정하는 랭킹과 결과와 주간 순방문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 다음 랭킹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지식검색을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는 아래 6가지 사이트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포털사이트는 6개의 사이트의 결과를 재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6개의 사이트 중 점유율 0.01% 미만의 '드림위즈 지식검색'과 2009년 7월 24일자로 서비스를 종료한 '파란 지식바다'를 제외한 상위 4개 사이트의 지식검색의 카테고리에서 대분류 구조는 <표 2>와 같다.

<표 3>과 같이 한의학과 관련된 지식은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건강·의학 또는 의료상담의 대분야 아래 2단계 지식검색 디렉토리에 속해져 있으며 <표 3>에서 한의학 카테고리에 쓰여져 있는 숫자는 전문지식인의 답변이 완료된 지식의 건수를 나타낸다.¹⁾

<표 3> 한의학 지식검색 디렉토리 구조도

사이트	1단계	2단계	3단계
네이버	건강·의학	한의학 (52,140)	11개 하위분류
다음	건강·의학	한의학 (8,670)	
네이트	건강·의학	한의학·민간요법 (39,443)	

1) 2009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임.

야후코리아	건강	전통의학 (4,430)	
	건강	의료상담 (10,225)	한의학

야후 코리아의 경우는 특이하게 '한의학'과 '전통의학' 디렉토리를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각 분류별 지식의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네이버를 제외하고는 한의학의 최종적인 카테고리로서 더 이상의 세부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네이버의 경우에는 2단계 한의학 아래 11개의 분류체계를 지니고 있다.²⁾ 향기요법과 다이어트를 제외하면 진료과목에 따른 분류가 제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의원의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로 총 6개이며, 한방병원은 여기에 한방재활의학과와 사상의학(체질)과가 추가되는데, 네이버의 경우 한방피부과라는 별도의 분류를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2. 한의학 전문 웹사이트의 한의학분류체계

앞서 검색포털의 지식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한의학 분류체계를 살펴보았고, 이번 장에서는 한의학 분야에 특화된 사이트를 중심으로 정보제공에 있어 분류체계를 어떻게 삼고 있는지 알아본다.

2.1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는 전문의료정보, 전통요법 등 건강의료정보와 멀티미디어정보, 부가서비스를 위한 용어 시소러스 작업 및

2) 향기요법은 건강·의학>대체요법>향기요법으로, 다이어트는 건강·의학>다이어트로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하기에 실제 9개로 구성되었다고 봄야함.

포털 서비스 기능 개발을 통한 한의학 종합정보 사이트로서 국가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한방의약지식에 대한 포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방의료 정보에서 분류검색의 구조는 아래 [그림 4]와 같으며, 1차분류로서 한의정책제도, 한의건강정보, 전문의료정보, 연구정보, 본초약재정보, 전통요법 정보가 구성되어져 있다. 그리고 6개의 1차분류 아래 2차분류가 각각 설정되어 있고 그 아래에 해당 지식이 존재하는 3단계 구조를 지닌다.

◎ 한방의료정보 | 분류·검색

한의정책제도	정책제도(3)	건강보험(1)	관례법령(1)	국제교류(4)
한의건강정보	기초자료(3)	건강보험(1)		
전문의료정보	질환정보(2)	치료정보(2)	고장치료기술(4)	
연구정보	연구보고서(2)	자료집(1)	한국에는 몇가지(1)	
본초약재정보	본초자료(3)			
전통요법정보	생체(1)	도안(1)	금기(1)	

[그림 6] 한의학 지식정보자원 웹서비스의 한방의료정보 분류체계

전통적인 지식자원을 관리하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이트이기에 실제 자료는 개별적인 건이 아니라 일종의 보고서 형태처럼 관련된 정보를 집합해서 보여준다. 예를 들어 전통요법정보 중에서 금기 카테고리의 ‘오장에 대한 금기’를 검색하면 단편적인 정보가 아니라 오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 정보 분류에 있어 문제점은 식치, 도인, 금기 등 일반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카테고리 제목으로 사용함으로서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식치’라는 것은 음식물을 알맞게 조절하여 병을 치료하는 일이므로 치료

방법으로, 도인은 호흡과 운동으로 신선한 공기를 체내에 끌어넣어 모든 병을 물리치는 방법을 의미하므로 기공체조와 같이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이 보다 쉽게 개념을 파악할 것이며, 금기는 어떤 약이나 치료법이 특정 환자에게 나쁜 영향이 있는 경우에 그 사용을 금지하는 일인데 많이 통용되는 단어이므로 그냥 써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의학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의 사람이라면 분류검색이 가능할 것이나 일반인을 고려하여 설계된 분류기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검증을 마친 데이터나 전문기관에서 발행된 보고서 위주의 지식을 검색하기에 민간 포털에서 주 대상으로 하는 질환이나 치료정보에 대한 지식 분류기준이 너무 포괄적이고 등재된 지식의 수가 빈약하다.

2.2 국가지식포털

국가지식자원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 것이며, 국가지식포털은 각 기관별로 전산화된 국가 지식 자료를 통합검색하여 제공함으로써 모든 기관과 국민이 국가지식 정보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포털이다. 디렉토리 검색 기능은 현재 지식 DB별 검색, 주제별검색, 출처별 검색, 자원유형별 검색 4가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제별검색에서 1차 의·약학 분류의 하위 14개 분류 중의 하나³⁾로 한의학이 위치하고 있다. 한의학의 하위 디렉토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총 112,425건에 대

3) 의약학의 하부 분류로서 의학일반, 해부학, 생리학, 공중보건/예방의학, 내과학, 외과학, 치의학, 안과학, 이비인후과학, 산부인과/소아과, 약리학, 간호학, 한의학, 기타 제의학이 제시되고 있음.

한 지식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3 전통지식포털

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의 경제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특허청은 한국 전통지식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학문 및 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지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논문, 약재, 처방, 병증, 유사처방, 화합물, 용어사전, 한양방병증매핑 등의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별 분류가 특별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검색의 기능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앞서 언급한 세부 메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각 메뉴별 세부 필드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이 웹사이트의 분류의 특이성이라고 하면, 일반인의 한의학 의료지식에 검색 관점에서 한의학의 치료 프로세스 순서의 흐름에 맞게, 즉 병증과 병증에 따른 처방, 처방의 구성 약재, 약재의 화합물구조식, 그리고 전체 한의학용어 및 한의학 병증에 해당하는 양방병증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시스템의 구조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3. 한의학 지식분류체계 개선안

민간 종합포털에서 지식검색 기반 한의학 분류체계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한의학 지식정보 제공 사이트의 분류체계의 분석결과를 비교하고 나름대로 지식 검색 이용자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찾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유사결과에 대한 2차 검색을 염두에 두고 제안하는 한의학 지식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 네이버와 같은 민간 지식검색에서 제

공하는 바와 같이 건강·의학 분야를 1차 카테고리로 한의학을 2차 카테고리로 전제를 하고 그 하위 분류체계에 대한 구성안을 설정한다.

네이버만이 현재 한의학의 세부 분류체계로서 진료과목 위주의 9개 분류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한방병원에서 운영하는 8개의 진료과목 이외에 최근에는 면역계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아토피, 알러지와 같이 유아들의 질환 발생률에서 피부질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현재 등록된 지식 건수 역시 타 진료과목 분야와 비교해서 낮지 않기 때문에, 진료과목 아래 9개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수용한다.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이용자가 특정 질환에 대해서 예방, 증상, 예후, 처방, 상담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대로 수용하는 체계를 지니며, 한의학 아래에 진료과목의 분류체계만 운영될 때 특정 진료과목에 속하지 않는 공통적인 지식체계에 대한 2차 검색이 힘들어지는 관계로 한의학용어, 한의학문헌, 약재, 한방병원·한의원, 대체의학을 추가적인 하위 분류체계로 제안을 한다.

<표 4> 한의학 지식 분류체계 개선안

3 depth	4 depth
질환(진료과목)	한방내과 등 9개 하위 분류
한의학용어 및 문헌	
약재	
한방병원·한의원	
대체의학	

한의학용어를 추가한 이유는 한의학 학문적인 특성상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 한자어로 표기된 용어가 많기 때문에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인프라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이 부분

은 대부분 포털이 사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과 연동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동의보감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한의학 문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문헌에 대한 지식은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질환별 분류가 가능하지만 문헌의 역사적 가치, 저자 등과 같은 정보는 공통정보라서 별도의 분류체계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실제 지식 등재 건수를 조사해본 결과 그리 많지 않기에 한의학용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분류체계로 설정하였다. 약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단일 약재 그 자체 효능에 대한 정보나 타 약재와 조합을 하여 사용되어 질 때 질환에 종속되어져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분류체계를 제안한다. 치료의 주체인 의료기관에 대한 질문의 빈도수를 고려해서 설정 하였으며, 향기요법, 치료마사지, 아로마테라피 등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으로 분류 되는 한의학이 전통의학이라는 점 때문에 신규 분류체계를 책정한다. 이용자 입장의 navigation depth를 고려하여 9개의 진료과목을 3단계 depth로 모두 올리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개선된 분류에 대해 네이버와 다음에서 운영하는 지식 검색에 실제 등재된 한의학 지식 내용을 대상으로 새로 제안한 분류기준에 저자의 관점에서 새로 분류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제안분류체계에 따른 지식 건수

	네이버 분류	제안분류	다음분류
한방내과	59	28	10
한방부인과	10	7	14
한방소아과	5	3	2
한방안이비인후과	7	7	4
한방신경정신과	3	3	0
침구과	23	17	7
한방재활의학과	5	5	2

사상의학(체질)과	32	18	6
한방피부과	23	22	7
한의학용어 및 문헌		2	2
약재		32	15
한방병원·한의원		22	6
대체의학		1	0
합계	167	167	75

네이버 지식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 간 등재된 지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네이버의 지식에 대해 새로운 분류체계를 적용한 결과가 <표 5>의 결과이며, 다음에서 운영하는 지식검색의 경우 현재는 한의학 하위 분류가 없지만 분류체계를 설정할 경우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등재된 지식 건수에 대해서 <표 5>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검색포털에 대해 조사기간과 대상 지식 건수를 다르게 조사한 이유는 이용자가 여러 지식에 동일한 질문을 올린 결과를 배제하여 지식 분류별 건수가 어떤 분포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함이고, 네이버에 비해 다음이 상대적으로 등재 건수가 적기에 조사기간을 늘린 이유이다. 네이버의 한의학 분류체계에서 첫 번째 디렉토리가 한방내과이기에 실제 지식의 속성에 무관하게 이용자가 선택한 경우가 많았고, 특정 약재의 효능에 관한 지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질환과 관련된 분류에 속해있지만 지역별/질환별 한방병원·한의원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약재와 의료기관의 분류 체계를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 다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지식검색의 분류검색의 과정과 분류 내에서 타 지식의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는데 용이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서 생성되는 한의학 지식은 위 세부 분류에서 특정 분류체계 하나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에서 분류에 대한 태그를 이중으로 허용할 수 있게 하여 상호검색이 가능하게 서비스되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III. 결 론

인터넷의 대중적인 보급 및 이용의 활성화에 따라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환경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의 흥수로 인해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게 된다. 가비지가 아닌 고급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 주체들이 각성한 이후로 특히 지식 검색에 대해서 지식 콘텐츠를 검증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들과 제휴하여 품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생명과 관련이 있는 서양의학과 한의학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의 답변을 등록된 지식 검색의 중요성은 날로 커나가고 있다. 이러한 올바른 정보의 제공과 함께 중요한 점은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의학이라는 대표적인 하나의 주제만 제시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지식 및 연관 지식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는데 시간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되며, 다른 분류 체계의 제공시에는 지식 검색의 접근성이 혼선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직관적으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적정 분류체계 제공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식검색을 접근하는 방향에 있어 주제 분류를 통한 검색방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고, 한의학 분야에서 분류체계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반 종합포털의 현재 한의학 관련 분류체계와 공신력이 확보되어 운영되는 정보제공 사이트를 대상으로 분류체계를 고찰하여 이용자입장

에서 편리하고, 2차적인 정보의 재 이용성을 고려하여 한의학 지식 검색에 있어서의 분류체계를 제안하였다. 아직까지 서비스 운영주체간의 한의학 지식의 호환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러한 유사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통일된 형태의 지식 정보 제공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일반 이용자 검색의 편의성과 결과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1. 김성희. 인터넷상의 디지털 문화콘텐츠 분류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02. 36(3):181-200.
2. 신동민. 인터넷 검색엔진의 디렉토리 구성을 위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01. 18(2):143-164.
3. 김정소. 자료분류론. 대구:계명대학교출판부. 1992.
4. 정경희. 의학 분야 웹 자료의 분류에 대한 개선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00. 4. 21(2):89-106.
5. 남영준. 웹문서 분류체계의 분석 및 새로운 설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1998. 33 (3): 207-230.
6. 이정화. 한의학 고문헌의 주제 분류와 자료적 특성. *한국의사학회지*. 2006. 19(1): 65-76.
7. 김상균, 김철, 장현철, 예상준, 송미영. 한의학 연구개발과제 분류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08. 25(4):309-326.
8. 이창수. 정보통신기술 분야 인터넷자원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00. 31(4):111-138.
9. 김성원. 디렉토리 분류체계의 표준구분 관련 항목 전개. *정보관리학회지*. 2008. 25(3):357-375.

10. MBC 뉴스후(89회) 2008.07.05
11. <http://www.rankey.com>
12. <http://kin.naver.com>
13. <http://k.daum.net/qna/>
14. <http://ask.nate.com/>
15. <http://kr.ks.yahoo.com/>
16. <http://www.knowledge.go.kr>
17. <http://jisik.kiom.re.kr/>